

# 5·18 기록관 새 수장고, 기록물 보존 특화 공간으로 조성

### ‘보존 처리·복원 기능 확충’ 건축기획용역 최종 보고회 열어 광주 5·18교육관 인근 주차장 부지에 2026년까지 3층 규모

새로 지어지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수장고에는 기존에 없었던 자료 보존 처리와 복원 등 기능이 확충된다.

5·18기록관은 지난 7일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사업’ 건축기획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건축기획용역은 중앙정부부처 심의와 광주시 공공건축기획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을 거쳐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건축 방향성, 규모 등을 정하는 용역이다.

5·18기록관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

인근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기록물 보존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부지면적 1만 4199㎡, 건축연면적 6300㎡ 안팎 규모로 신축된다.

용역팀은 신규 수장고에는 하역장, 인수서고, 소독·탈산실, 스캐닝실, 보존복원실(처리실) 등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고 신규 연구 설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동구 금남로에 있는 5·18기록관에는 스캐너,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탈산처리기(산소 제거기), 향온향습기 등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으며, 수

장고와 보존 처리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등 열악한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포화 상태였던 수장고 수용 규모도 대폭 늘린다. 신설 수장고에는 현재의 3.4배 규모인 680만여 점의 기록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최소 1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 추가 수장고도 설치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복안이다.

현재 5·18기록관은 최대 200만점의 기록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장고에 182만여점 기록물을 보관 중(만고율 91%)으로 포화 상태다. 매년 10만여점 씩 기록물이 기증되거나 신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내로 완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오는 9월까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조사 기록물까지 5·18기록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라 추가 보관 장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5·18기록관은 일단 5·18진상조사위의 기록물 중 종이류 기록물은 자료실 등에 분산 배치해 임시 보관하고, 신규 수장고가 마련되면 이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신규 수장고에는 세계민주화운동기록관을 비롯한 상설·기획 전시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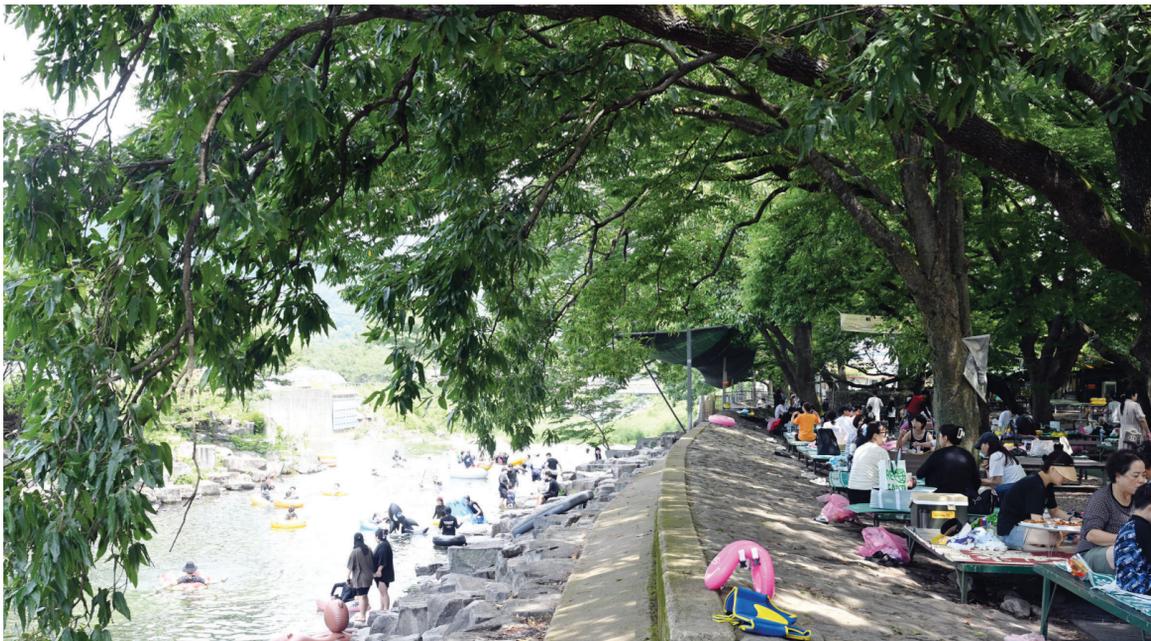
총사업비는 452억원(국비 160억원, 시비 292억원)으로 계획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조정·협의를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예정이다.

5·18기록관은 이달 내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로 사업을 이관하고 실시설계 공모를 받을 방침이다.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수장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5·18기록관을 신설 부지로 이전하는 안, 신규 수장고를 1기록관으로 하고 금남로 구 기록관을 제2기록관으로 분할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신규 수장고 인근에 전시될 예정인 5·18 출동 군장비들은 설계 공모자가 직접 전시 위치를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것과 동일한 군 장비를 전시하는 ‘5·18 출동기증 이전 및 전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폐기 예정이었던 경장갑차, 지휘용 장갑차, M113장갑차, M48전차, 500MD 군용헬기 등 총 5대를 광주로 이송했으며 현재 전시 위치를 정하지 못한 5·18교육관 주차장 부지에서 보관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피서 천국인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8월 화순군 한천면 동가리 숲속유원지를 찾은 피서객들이 아름드리 느티나무 밑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주말에도 열대야 기승

### 무더위 속 9~10일 소나기

기상관측 이래 최악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 2018년 보다 긴 열대야와 폭염이 광주·전남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낮 최고기온은 32~35도, 10일은 31~34도를 유지하는 등 주말에도 무더위가 가중될 것”이라고 8일 예보했다.

9일과 10일 5~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주말까지 높은 습도의 ‘한증막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반도 주변 상공을 두텁게 덮고 있는 두 개의 고기압(북태평양-티베트)이 다시 강화됨에 따라 덥고 습한 남풍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특히 올해 여름은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지난 2018년에 비해 폭염보다 열대야가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열대야 일수는

18.6일로 평년 같은 기간 6.7일을 훌쩍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지난 2018년(15일)보다도 열대야가 3일 더 늘었다.

열대야가 평년보다 자주 발생한 이유로 한반도 부근으로 부는 덥고 습한 남서풍이 지목된다.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활발해진 대류 활동이 북태평양고기압을 북서쪽으로 확장시켜 남서풍이 자주 부는 환경을 형성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 산업,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며 “소나기가 내릴 때는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으니 낙뢰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코레일 추석 열차표 19~22일 예매

### SR은 26~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19일부터, SR은 26일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을 예매한다.

코레일은 오는 19일부터 나흘에 걸쳐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화 등을 통해 ‘2024년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19~20일에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한다. 19일에는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충부내륙·경북선을, 20일에는 호남선과 전라선을 비롯한 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을 판매한다.

이 기간에 예약한 승차권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는 예매에 앞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나 유공자번호 등을 사전등록해야 한다.

21~22일에는 전국민이 예매할 수 있다. 21일에는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충부내륙·경북선을, 22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을 대상으로 한다. 결제는 25일 밤 12

시까지 해야 한다.

잔여석은 22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역 창구 등지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예매는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이나 코레일 홈페이지, 전화(1544-8545)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 시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코레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명절 승차권 예매전용 홈페이지’를 사전 운영하며, 19일 이전까지 이곳에서 예매 체험을 할 수 있다.

SRT 운영사인 SR도 오는 26~29일 나흘 동안 온라인·전화를 통해 추석 승차권 예매를 받는다. 26~27일에는 경로·장애인·상이유공자를 대상으로 우선 예매를 받으며, 28~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26일과 28일에는 경부·경전·동해선을, 27일과 29일에는 호남·전라선을 예매할 수 있다. 승차권은 다음 달 1일 밤 12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전화예매한 경우 다음 달 4일 밤 12시까지 결제하면 된다.

잔여 좌석은 29일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 SRT 앱, 역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복지·문화·체육 한 번에...북구 ‘오치 복합 커뮤니티센터’ 개관

광주시 북구가 주민들이 휴식과 복지뿐 아니라 체육활동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오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8일 북구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오치 복합 커뮤니티센터(센터) 앞에서 개소식을 진행한다. 정식운영은 9월부터 시작된다.

센터(연면적 2683.3㎡)는 오치 주공 1단지 내 유휴공간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주민 카페·실내 놀이터·통합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2층에는 스테디카페와 프로그램실·주민 공동작업장, 3층에는 다목적체육관과

사무실 등이 마련됐다. 주차장 면수는 16면으로 외부에 설치돼 있다.

북구는 센터 내 프로그램 구성, 강사 모집, 가전·가구 설치 등 주민 맞이 체비를 끝으로 주민들을 맞을 준비를 끝냈다.

북구는 센터 조성을 위해 지난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인성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인근 주공 영구 임대 단지의 활력을 높이고 오치 권역 지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북구의 설명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